

800萬年未來에의 傳言衛星
—NASA, 5, 900k 上空에 發射—

800萬年뒤의 未來人을 相對로 한 現代人의 地球科學知識을 誇示할 작은 金屬板을 실은 測地衛星이 美航空宇宙局 (NASA)에서 지난 5月4日 發射되었다.

캘리포니아의 空軍基地에서 발사된 LAGEOS(地球力學衛星)는 5, 900km의 圓形軌道에서 돌고 있으며 무게는 411kg으로 表面에는 426個의 레저反射鏡이 裝置되어 있다.

이 測地衛星은 地上의 어느 地點과 衛星사이를 돌면서 레저의 往復時間을 測定함으로써 距離를 計算하는 것이다. 未來人에게 傳하려는 내용은 大陸移動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다.

書信도 電子配達組織
—美遞信省, RCA 에 開發委囑—

美遞信省은 220萬달러를 들여 RCA 社로 하여금 書信을 電波나 電線으로 送信할 수 있는 電子郵便組織의 開發을 委囑하였다.

현재에도 소령센터 등에 電子書信박스를 設置하여 發信人이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한 편지를 機械에 넣으면 컴퓨터가 읽어서 電氣信號로 바꾸어 보내게 되고 그 신호는 受信人의 住所 근처의 受信郵便局에 접수되어 文字로 바뀌어 나오면 配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DATA通信, 팩시밀리, 通信衛星을 이용하여 全國의 인 메시지傳達組織을 만드는 것은 技術적으로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려는計劃이 實現되면 郵票料金은 현재

와 別差異가 없이 발신인이 바라 는 곳에 하루밤 사이에 배달됨으로써 70萬名에 이르는 우편배달부가 不必要하게 되므로 勞動力의 1%가 節約된다는 計算이다. 이 계획은 3年後에는 實現시킬計劃이다.



피스턴엔진用 가스爐心原子爐
—美 플로리다大教授가 開發—

美 플로리다大學 닐스 다이어즈教授는 幅은 動力源이 될 피스턴엔진用 「가스爐心原子爐」를 開發하였다.

이 피스턴엔진用 原子爐는 核燃料가 직접 動力으로 轉換되기 때문에 종래의 원자로에 比하여 效率이 훨씬 좋고 燃料費도 싸게 들뿐 아니라 엔진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엔진은 3年 以內에 實驗用이 만들어질 것이나 疉여되는 것은 安全性이나 放射性廢棄物處理問題가 아직 解決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이어즈教授는 그의 成功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엔진이 出現하면 工場이나 交通機關用으로 쓰여질 것인데 그 내용인 즉 가스狀의 核燃料에 中性子の 불씨로 核爆發을 이르게 膨脹하는 가스의 힘으로써 개솔린엔진과 같이 피스턴을 始動시킨다.

世界 最大의 熔岩窟 發見
—英 探險隊가 케냐에서—

英國의 6人組 케냐探險隊는 世界에서 가장 길고 깊은 熔岩窟을 케냐에서 發見하였다. 이 탐험대가 探查한 굴의 길이는 11km, 깊이는 457m이며 美國의 하와이에 있는 길이 10km와 케냐群島의 깊이 426m짜리보다도 길고 깊은 용암굴로서 이 굴속에는 體長의 8cm 白蛇와 붉은 色의 목을 가진 박쥐도 棲息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는 報告이다. 이 굴의 位置는 아프리카東岸과 나이로비의 中間地點에 있는 死火山인 출連峰이라고 한다.

核軍備와 癌論爭 熾烈
—死亡率實證에 工場側 懷疑—

美國에서는 核軍備工場 從事員들이 癌의 罹患率이 높다하여 問題가 되고 있다.

특히 폴트로늄을 取扱하는 核軍備工場에서 종사하다가 死亡한者 42名을 解剖한 바 그 3分の1이 암으로 죽었음이 判明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콜로라도의 록웰·인터내셔널社의 핵공장에서 1953년부터 操業以來 사망한 자 가운데 33명이 암으로 죽었고 同社 렉킬라르공장에서는 5년 동안에 25명이 암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대하여 핵공장쪽에서는 그만한 結果로서 結論을 지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기는 하나 어떠한 핵군비와 암의 攻防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